



김정숙 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 서예로 감상

'대구한글서예대축제' 9일까지 250여 명 작가 희망 담은 작품

대구한글서예협회가 한글날을 맞아 9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11전시실에서 '제 13회 대구한글서예대축제'를 열고 있다.

2009년 창립한 대구한글서예협회는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는 한글서예 작가 25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아름다운 한글 서예로 새 희망을 쓰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회원들의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다.

전시장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실린 정인지 서문을 한글로 번역한 8폭 대작이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작품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전시 기간 중 탁본 체험과 가훈 쓰기, 훈민정음 창제 과정과 뜻을 배울 수 있는 전시공간도 마련된다.

최민경 대구한글서예협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불안함 속에서 위축된 생활을 해왔으나 이제는 그 어려움을 떨쳐내고 힘차게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올해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문구들을 소재로 삼아 작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글자를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려고 한 세종대왕의 애민 의식이 글속에 절절히 배어 있어, 시민들에게 사랑과 배려의 공동체 정신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연정 기자

1,250℃ 용광로에 핀 연꽃

이대희 '연(蓮)에게 길을 묻다' 전

개인 용광로에 독보적 주조방법 연잎 등 섬세하게 재현 20여 점 9일까지 갤러리 인 슈바빙 전시

"이제 제 작업 과정을 짚어놓은 겁니다." 그가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먼저 내밀었다. 낮인데도 어두컴컴한 작업장에는 방열복을 입은 몇 명의 사람과 쇳물의 시뻘건 불빛만이 보일 뿐이었다.

작업 과정은 이렇다. 직접 배합한 청동, 황동 등 금속을 용광로에 넣고 용융점인 1천250℃까지 3~4시간 끓여낸다. 조정처럼 뾰족하게 굽은 쇳물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다.

용광로를 기울여 시뻘건 쇳물을 두 개의 작은 도가니에 나눠 담고, 미리 만들어둔 틀의 양쪽 구멍으로 동시에 쇳물을 붓는다. 한 번 사용하면 다시 못쓰는 틀. 쇳물을 붓는 작업 과정은 불과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한 치의 실수도 허용하면 안된다.

김천 출신의 이대희 작가는 전국에서 독보적인 주조방법을 보유한 조각가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공장에 작품 제작을 맡기지만, 작가 개인이 용광로를 보유한 경우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용광로 작업에 도전했던 이들도 고난도 작업 탓에 결국 포기했다.

그는 "30여 년간 작업하면서 쪼그리고 앉거나 오리걸음을 해야할 때가 많았다. 어느 날 병원에 가니 연잎이 다 닳았다고 하더라. 몸이 성하지 않은 곳이 없다.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쇳물은 물기, 습기가 조금만 달아도 사방으로 튀어버린다. 물기 때문에 용광로가 터져서 작업장이 불바다가 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작가가 보여준 영상에는 쇳물을 붓는 작업 과정만 나와있지만, 쇳물을 붓는 틀의 형태를 만드는 사전 작업이 핵심이다. 규사로 만든 거푸집을 만들고 그 위에 쇳물의 팽창과 수축을 견딜 수 있는 철근을 두른 뒤 전체적인 두께를 고려해 탕도(湯道·쇳물이 흘러들어가는 통로)를 만드는 데, 이 과정에만 한 달이 걸린다.

그는 "김세중, 김영중 등 1세대 조각 대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가가 작품을 의뢰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청동 주조작업을 혼자 하고있다는 데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대희 작가가 '봄의 울동', '가을의 울동'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연정 기자



했다. 이 작가는 영남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정밀주조법을 익혔다. 합금을 위해 금속공학, 화학공학 이론을 학

습한 것은 물론, 북성로에서 직접 전기·산소·아르곤 용접을 배우기도 했다.

그는 "주물은 구리와 주석, 아연 등의 배합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며 "일반 주조 공장에서는 세가지 정도의 색을 낼 수 있는 반면, 나는 30가지 색을 표현해낼 수 있다. 산화 등으로 착색 작업까지 마무리하면 다양한 색의 작품이 완성된다"고 했다.

그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가 9일까지 갤러리 인 슈바빙(대구 중구 동덕로 32-1)에서 펼쳐진다. 전시 제목은 '연(蓮)에게 길을 묻다'. 연꽃과 연잎, 연잎을 섬세하게 재현해낸 청동조각들 20여 점이 전시된다.

"작업장이 있는 경산 자인 주변 못에서 연꽃을 많이 보다보니,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또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 주돈이(周敦頤)의 애련설(愛蓮說)에는 '향원익정(香遠益清)'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향기는 멀어질수록 더욱 맑아진다'는 의미인데, 그와 같은 미덕을 닮고자 하는 제 마음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무겁고 딱딱해보이는 것이 금속 특유의 성질이지만, 그의 작품에서는 유달리 자연의 생명력이 느껴진다. 바람 부는 날 흔들리는 연잎, 보름달 속 피어난 연꽃 등의 작품에서 그러한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053-257-1728. 이연정 기자 lyj@maeil.com

매일춘추

어떤 곳

나는 경산에 산다. 사는 집은 시내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간 자인면이지만 매일 아침 경산의 구도심에 있는 나의 직장처럼 되어버린 '미술중심공간 보물섬'으로 나온다. 이른 시간 버스를 타고 경산 시내로 향하는 20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가을로 접어들어 이즈음이면 새벽 물안개가 자주 낀다.



최성규

경산은 미술계의 시각으로 보면 매력 없는 도시이다. 그래서 경산은 미술계의 '어떤 곳'에 불과하다. '어떤 곳'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뜻한다. 그러므로 '어떤 곳'에 사는 사람은 그곳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지도 않으며 관심도 없다.

'어떤 곳' 또는 '어떤 지역'에서 미술 활동을 하는 건 불리한 일이다. 대도시 중심, 수도권 지역 중심에서 벗어난 다른 지역은 미술계의 힘 있는 사람들로 부터 떨어져 외면당한다. 대구경북에 있는 미술대학 졸업생들의 많은 숫자가 수도권 지역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일이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될 만큼 청년 작가들의 지역 유출은 심각하다. 심지어 지역에 남은 청년들은 뒤쳐졌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이런 상황에 청년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기를 바라는 건 어렵다.

나는 미술계의 '어떤 곳'은 없다는 생각으로 경산의 '미술중심공간 보물섬'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는 대구경북에서는 흔치 않은 '보수'를 주제로 20대 후반 나동석 작가의 개인전이다. 이 전시의 외부 기획자로 선정된 황지원은 경산이 고향이다.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서울에서 마쳤지만, 보물섬의 기획공모전을 인연으로 그녀의 고향 경산에서 나동석 작가와 함께 전시를 만들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수많은 화살표가 그려진 '또 다른 행렬들'이라는 제목의 드로잉을 볼 수 있다. 많은 화살표가 무엇인가 궁금해지는데, 그 모양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인 대구를 향하는 행렬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월영야행-숨어있는 자들'은 끝없이 눈치보는 눈동자의 움직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뛰어든 뛰어든 그냥 제자리인 '산 아래 청년들'은 서글픈 이 지역 청년들의 자화상이다.

"비록 아름다운 이름이 없을지라도 그대의 영혼은 테두리면 테두리, 지점이면 지점, 모두가 아담이나 카이사르의 영토 못지않게 위대하다! 그러므로 그대 자기 세계를 건설하라!" 고 에머슨은 그의 책 '자연'에서 말한다. 미술계에선 오랫동안 '어떤 곳'이었던 경산에서 20대 중후반의 작가와 기획자가 만났으며, 미술 기획과 비평을 꿈꾸는 두 명의 청년이 보물섬의 이 전시를 대상으로 평론을 준비 중이다. 어떤 곳의 어떤 전시가 되지 않기 위한 보물섬과 그에 동의하는 여러 작가, 기획자들의 공동활동이다.

경산이라서 가능한 것, 경산이기에 필요한 것을 생각한다. 대안공간이라는 거창한 간판이나 대안적 미술 활동이라는 무거운 말에 짓눌리지 않고 '이곳'이기에 해야 할 일을 찾아본다. 경산만이 아니라 대구경북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나의 눈과 생각을 이곳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모두 '이곳'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한다. 역부족이면 모자라는 대로 자신으로 향하는 눈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보편적 문제에 민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곳은 혼자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의 동료가 될 수 있다. 미술중심공간 보물섬 대표

면허다서 부차되자 대형,대형견인차 (츄레라)

면허다서 행복하자 소형견인차,2종소형 (카라반) (오토바이)

대구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1·2종, 대형, 2종소형, 견인차

학원 자체시험

대구 시내 매시간 통학버스 운행

수목원같은 쾌적한 교육장

053.314.8888

3호선 팔달역/팔달교역

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Since 1968

54년 전통의 고품격 명문학원

2022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KOREA CUSTOMER INDUSTRY APPRAISAL

아카데미

대구광역시 북구 직업/기술(문진) 부문 1위

동양자동차 운전전문학원